

8주 2020년 동계방학 목상지

2월 1일 월요일 <말씀목상> 사35-38

• 내용요약: 이사야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1-35장, 36-39장, 40-66장). 35장은 제1부의 마지막 장으로 지금까지는(28-34장) 유다의 타락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었다면 그後は 어두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축복과 그나라에서의 넘치는 생명력과 벽찬 기쁨을 기록한다. 36장은 유대 13대 왕 히스기야 통치 14년 앗수르 왕 산헤립의 2차 침공사건을 배경으로(1-3절), 산헤립의 사신들과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의 담판 장면(4-20절),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37장에는 히스기야가 자신과 신하들과 더불어 회개한 후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5-7절), 산헤립의 두 번째 항복을 요구할 때(14-35절),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앗수르 군대의 멸망과 산헤립의 비극적 최후를 기록한다. 38장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신 사건을 기록한다.
 • 질문: 히스기야는 무엇을 통해 생명을 연장받았는가?
 • 생각하기: 신앙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2월 4일 목요일 <말씀목상> 사49-51

• 내용요약: 이사야서 제3부의 첫 장인 49장은 지금까지 제2부(40-48장)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바벨론 해방 예언을 훨씬 능가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언으로 가득하다. 특히 본장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단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뿐만 아니라 장차 영적 이스라엘 된 자들에게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메시아의 구원언약에 이르기까지 매우 영적이고 범우주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50장에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고통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죄악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자기 자신임을 일깨우고(1-3절),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죄로 인한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의 수난과 그 수난을 이겨내시는 메시아의 능력에 관해 소개하고(4-9절),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는 것(10-11절)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51장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외세의 위협을 받으며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 질문: 이사야 50장의 핵심내용은?
 • 생각하기: 회개없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2월 7일 일요일 <말씀목상> 렘7-9

• 내용요약: 지금까지 유다에 임할 심판의 당위성과 필연성에 관해 지적했던 두 번째 설교(3:6-6:30)에 이어 7장에서부터 10:25절까지는 유다백성의 위선적이고 가증한 면면들을 고발한 세번째 설교가 소개된다. 이 설교는 당시 유다가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 애굽을 더욱 의지하던 친애공정책을 펼치며 각종 사회악이 만연하여 소망이 사라져버렸던

2월 2일 화요일 <말씀목상> 사43-45

• 내용요약: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스럽고 우매하게 범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한(42장) 이사야는 43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부르심(1-8절), 하나님만이 구원을 실행하며 완성시킬 수 있음(9-13절), 악인은 모두 심판당하나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되고 생명이 약동하게 될 것을 적고 있다. 44장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선언 앞에 절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약속(1-5절), 이스라엘을 죄악의 자리로 이끌었던 우상의 허구성과 그 허무한 결과에 대한 비판(6-20절), 허무한 우상과는 대조되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역과 회복예의 약속(21-28절)을 적고 있다. 45장은 바사 왕 고레스(B.C.539-529)를 들어쓰시어 폐허가 된 이스라엘 성읍들을 재건할 것에 대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발전, 확대되어 가시지를 보여주며(1-13절),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14-19절), 하나님의 초월한 주권과 유일성(20-25절)등을 소개한다.
 • 질문: 하나님은 바사왕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나?
 • 생각하기: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지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만난 곳이다.

2월 5일 금요일 <말씀목상> 사55-57

• 내용요약: 55장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역을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한 뒤, 본문에 이르러 적극적으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다. 특히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권면하고(1-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강조한다(8-13절). 56장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 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장면(1-8절), 이에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한 면면들을 들춰내어 책망하는 장면(9-12절)이 소개된다. 57장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와 같은 추악한 범죄의 자리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음란한 여인의 악행을 비유로 설명하고(1-13절),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설명(49-57장) 중 마지막 예언으로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14-21절).
 • 질문: 이스라엘의 우상의 범죄를 무엇에 비유했나?(57장)
 • 생각하기: 어느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수 없다.

여호야김 통치(B.C. 609-598) 시기로서, 특히 이 때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의 1차 침공(B.C. 605)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7장 부분(7:1-8:3)에는 유다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추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된 신앙태도를 책망하며 죄악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부분이다. 8장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타락한 유다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론했다. 9장에는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죄에 집착해 있는 유다에 내려질 준엄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 질문: 하나님 앞에 유다백성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7:1-8:3).
 • 생각하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요3:17).

이름: _____ 학번: _____

2월 3일 수요일 <말씀목상> 사46-48

• 내용요약: 바사 왕 고레스의 등장과 그를 통한 거룩한 경륜 및 온 세상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소개된 데(45장)에 이어 46장과 47장에는 유다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선언이 소개되고 있다. 46장에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인 '벨'과 '느보' 등이 파괴될 것(1-2절)을 경고(예언)한다.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행될 것(12-13)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 제국의 주신으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었지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들 우상들은 바벨론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다.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극렬한 심판선언(1-5절), 바벨론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6-11절), 바벨론의 허탄한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12-15)등을 적고 있다. 48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얻으리라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사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의 불신죄를 경고(1-11절), 이스라엘이 이방인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킨다(12-15절).
 • 질문: 바벨론 제국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은? (46장)
 • 생각하기: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행자지하면서 죄된 세상을 벗삼고 우상을 의지하는 인간은 끝내 망하고 만다.

2월 6일 토요일 <말씀목상> 사58-60

• 내용요약: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의 논조와 달리 주로 이스라엘의 축복된 장래와 궁극적으로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한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 먼저 참된 신앙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58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엄중히 지적하고 있으며(1-4절), 외식하지 않는 참된경건을 가르치고 있다(5-14절). 5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되는 여러 불법한 일들을 지적하는데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1-15절), 후반부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원섭리에 대해(16-21절) 언급한다. 60장은 하나님이 이룩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덧입게 될 거룩한 성 시온의 영광스러움이 노래되고 있다. 세상의 온갖 죄악을 몰아낼 영광의 빛이 시온에서 빛날 것(1-4절), 다시는 해된도 고통도 없이 영원한 평화와 복락이 넘치게 될 시온의 영광(19-22절)을 소개한다.
 • 질문: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58장)
 • 생각하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곳은 항상 평화와 행복과 생명이 넘쳐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타락한 유다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론했다. 9장에는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죄에 집착해 있는 유다에 내려질 준엄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 질문: 하나님 앞에 유다백성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7:1-8:3).
 • 생각하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요3:17).